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 1. 17.(금) 11:00
- 장 소 : 시의회 간담회장(2층)
- 참석자 : 심사위원회 위원 8명
 - 위원 : 최석민, 진식, 이만규, 김동식, 이시복, 서점복, 박천식, 하경환
 - 배석 : 의정정책관, 총무팀장,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관계자 등

•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3건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한꺼번에 질의응답하고 그 이후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안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안건 설명 후)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칩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안건 설명 후)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칩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안건 설명 후)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칩

•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응답을 하시기...

각각의 팀에 대해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콘셉트를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문건을 다 봤을 때 종전에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의 다른 해외출장 계획안들의 콘셉트가 확연히 드러나서 참 인지하는데 좋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회의 자료 12쪽에 보면 지금 일정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중에 2월 2일 일요일 일정에 보면 센터 관계자 면담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자 이름이 뭐더라...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여기 있습니다.

• **○○○ 위원**

어떻게 면담 이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네, 그렇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시민안전테마파크하고 유사한 성격이라서 시민들이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 **○○○ 위원**

원래 주말에 오픈이 돼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여기 담당자분도 이날 오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면담을 실시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네, 맞습니다.

- ○○○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 ○○○ 위원

저도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노력을 보면서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는 가서가지고 정말 세계 최대국은 사고가 났을 때,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후세를 위해서 알리느냐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숨기기 급급하고 근거를 안 남기려고 하고, 이런 민족성도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고를 수습하고 수습 이후에 그 상처를 같이 보듬고 가는,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한 발짝 더 성숙시키는 이런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 방문할 때는 현지 가이드나 아니면 여행사 쪽에다 맡기지 말고 사전에 의회에서 컨택을 잘 해서 그 기관의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또 대구를 대표해서 가는 의원들이 갔을 때 가서 기관 방문을 하든, 우리 또 교육위원회 보면 거기 대학교에 가서 재학생들하고 했을 때 그분들의 인식이 저 사람들 놀러왔다가 왔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정말 이 사람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뭘 고민하고 있구나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 멀리까지 왔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하려면 가이드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의회의 위상 문제니까 꼭 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충분하게 그 기관과 섭외를 하고 그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세 가지 루트로 접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부를 통해서 공문으로 직접 보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컨택을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소방본부 측의 관계자가 직접 메일을 통해서 섭외를 했고요.

세 군데에서 접촉을 해서 다 오케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미영사관에서도 지금 나오셔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설명을 들으시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방문기관 중 The Third Age Network(더 써드 에이지 네트워크)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여기 평생학습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은퇴 후의 삶에 대한 평생학습 위주의 그런 중점적인 학습기관이라서 저희가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극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제가 여쭙본 이유는 보통 토론토하고 뉴욕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출장 일자가 며칠 안 되는데 하루를 거의 이동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The Third Age Network(더 써드 에이지 네트워크)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소위 하루이상, 이거 하나 보는데 이틀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줄 자체는 보통 우리가 여행사에서 보거나 이럴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스케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The Third Age Network(더 써드 에이지 네트워크)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인지를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소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보려고.

보통 뉴욕 안에, 다 나머지는 뉴욕시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갔다 바로 나오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쭙봤는데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어야만 이들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 ○○○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하고 관련이 있나요, 캐나다 갔다 미국을 가는 게?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비용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보통 이렇게 일정을 잘 안 잡아서, 지금.

• ○○○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평생학습의 문제라면 세 번째 거기에 교육위원회 쪽에서 다루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교육위하고 저희 기행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중점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토론토 이쪽을 잡게

되었고요. 교육위하고도 저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밀접하게 업무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그럼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 **위원**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번에 트램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콘셉트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우리 회의자료 25페이지 일정표를 보면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말씀드릴 때도 제가 제언 하나 하겠습니까만.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주말 일정이랑 건교위 교육위 주말 일정이랑 확연하게 좀 드러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행정위할 때 주말 계획에 대해서 담당자 면담이 가능하던가요, 이렇게 제가 여쭙봤던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건교위 2월 2일 일정을 보면 융프라우 철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는 대구 정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는 솔직히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팔공산에 융프라우 철도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여기에 트램하고 관련된 지역도 아닌거 같고, 얘기 나올때 같이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도서관쪽으로 해서 콘셉트를 참 좋게 잘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높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요일 일정에 표 보면 44페이지 일정에 보면 2월 2일날 공교롭게도 우리 건교위가 인터라켄을 가는 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나이가가라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문의가 안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원체 사실 이거는 꼭 그 나라를 모르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사실 이게 물론 공무출장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사비도 들어가고 이게 또 일요일 일정이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보통 때처럼 다 제한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마는 당장 오늘 3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위원회는 당장 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 완벽하게 다 짤 수 있겠습니까마는 너무 눈에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은 짜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저희들은 /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스위스 같은 경우는 철도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 저희도 스위스에 가서 트램도 시승을 합니다. 물론 융프라우도 봅시다마는 시승을 하고 또 보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용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 **○○○ 위원**

그래요.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팀장님 /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전제하에 트램을 목적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날 하루 일정을 취리히라든지 루체른이라든지 이런 도시로 들어가면 의원님들께서 일요일 하루 쉬는 것도 충분하고 거기에 보면 버스하고 트램하고 연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루체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호수하고 관련된 이런 도시라서 배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 융프라우 이렇게 / 말씀을 드리는...

• **위원장**

교육위원회 일단 지금 같이 하시죠.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저희들은 이번에 사실 일과시간은 최대한 빠르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일요일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경비 부담되고 / 사실 견학식으로. /

• **○○○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여튼 스위스 / 이동하는 시간이 지금 보시면

(안 들립니다) 또 스위스에서 / 이동하는 시간이 /

• ○○○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동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이 동선도 많이 쓰이는 동선 인 것 같은데 많이 덜 쓰이는 동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리히라든지 루체른으로 만약에 수정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동선도 좀 덜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말씀 /

• ○○○ 위원

파리 쪽에는 이게 지금 파업 중 아닌가요?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지금 안 그래도 파리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관 방문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파리개발공사도 저희들이 한 1개월 반 전쯤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가 조금 더 파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나중에 부정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니까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도시개발공사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중간에 또 파리에 세경섬이라고 있습니다.

그쪽도 지금 섭외를 해 놔가지고 그날은 결과적으로 파리 세경섬을 선정해 났는데 그쪽도 취소할 수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파리도시개발공사하고 세경섬하고 두 군데를 다 돌아요.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군데 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 ○○○ 위원

파리도시개발공사는 파업 중이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파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도시개발공사 자체는 파업에 안 들어갑니다.

그쪽은 안 하고요.

일단 교통 쪽이 파업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자기들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저희 설득을 해 가지고 오케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두 군데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아마도 파리 같으면 금요일 오후에는 아마 근무를 안 할걸요?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

오후에 지금 파리도시개발공사는 오전에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세경섬. 민관합작기관이기 때문에 오후에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저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럽 쪽을 나가 보면 우리가 공무수행의 어떤 목적성을 달성하려고 하면 기관 방문을 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이제 의회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행사만 맡겨놔서는 현장에 가보면 아닌 경우가 있고 심지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하는데 거기서 뭐 공항 출입하듯이 옷 벗고 검사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들어가서 설명 듣고.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기행은 여러 가지로 세부계획도 잘 짜여 있고 한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의원님들 역할, 업무분담이 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건교는 저희들도 스위스에 가서 트램을 봤는데 물론 대구에서 그걸 한다는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쪽은 교통이 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쌍방향 아니고. 저도 참가를 해 봤어, 우리 의원님들 같이 그거를 보면서,

세비야에 가서 봤는데. 과연 대구에 이게 적합한가, 그렇죠?

복잡한 땅을 그만큼 매입을 해야 하는데 땅값이 이거는 뭐 천정부지인데,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겠나. 이 쌍방향, 우리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좀 같이 아마 참고해서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교육 관련해서는 타이틀 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타이틀 원이 수준이 낮다 이 말입니까?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수준이 높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그 환경에 비해서는 학력성취도나 이런 게 가장 높은 곳, 그런 곳을 선정해서

• ○○○ 위원

이거 방문하는데 저소득 학생들만 교육하는 그런 학교인가요?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문화, 다른 여러 국가들이 같이 함께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학생들

• ○○○ 위원

대구에 저소득 학생들만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그거는 없습니다.

• ○○○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면 있다는 거죠. 대구에 저소득 학생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냐고요?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없습니다.

• ○○○ 위원

그런데 왜 뭐하러 가는 겁니까?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지금 이제 우리가 대구도 지금 환경이 많이 변해서 다문화학생들이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고 또 다문화 학생들이 보면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보면 조금 지식이라든가 학력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을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런 데에
가서 좀 보고 우리에게 접목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 ○○○ 위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네.

• ○○○ 위원

거기 선진 교육을 마케팅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네, 그렇지요. 미국은 안 그래도 우리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르고 모든 민족이
와서 교육을 받는 곳이고, 오래전에 정착이 돼 있으니까.

• ○○○ 위원

내용에는 다문화 내용은 없는데. 공교육, 기초 학생, 미달 학생...

다문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지금 세부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 ○○○ 위원

상상제작소가 뭐죠?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대구형 상상제작소 하는 게 이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실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기술, 공학예술, 수학 이런 제반을 통합적으로, 특히 지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과 공유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 교육청도 있고. 물론 교육부에서 시책으로도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교육 방법을 4차산업에 맞게

• ○○○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상상제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네,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학교 30개 정도를.

• ○○○ 위원

학교? 상상제작소라고 하는 학교입니까?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네. 그걸 대구형 메이커 교육이라고 합니다.

• ○○○ 위원

상상제작소가 학교입니까?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학교 안에 있는, 옛날로 말하면 발명교실이라고 있는데 그게 더 발전돼가지고.

• ○○○ 위원

교내에 있는 발명교실. 발명교실이 서클입니까?

• 위원장

정부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메이커 교육을 한다고 학교에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구교육청에서 이름을 상상제작소라고 두고 상상제작소를 통해서 이런 메이커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걸 미국 가서 벤치마킹 해 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 위원

미국 가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지금 메이커교육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이 안 어울려가지고 융합교육이나 이거나 한 단계 더 높은 건데 교육부에서도 하지만 시도교육청에서도 사실 조례도 만들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 ○○○ 위원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대충 알아도 이게 수십 개가 될 텐데 이 상상제작소를 선정한 배경이나 이런 건 있나요? 그 많은 것 중에.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지금 이름을 어떻게 상상제작소로 한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곤란한데 아마 머릿속에 있는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고 미래의 교육을 생각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러면서 상상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와 닿게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하버드대학 한국인 재학생하고 미팅을 한다고 돼 있는데 몇 명하고 합니까,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지금 몇 명 사실 딱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해보면 집행부에 보면 국제교류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의회사무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하면서 짚기 때문에 몇 명 말고 그 재학생 중에서 한국 학생을 갖다 3명 정도는 지금 섭외했는데, 거기 가면 아마 더 있을 수도 있겠죠.

• ○○○ 위원

현재 3명하고는 섭외가 돼 있습니까?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네. 이야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확정된 거는.

그런데 그게 클래스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 위원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네. 3명은 지금 돼 있고.

• ○○○ 위원

이 학생들 3명은 어디 출신이죠? 대구지역 출신은 아니고요?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그것까지는. 한국 학생인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애들 만나는 거는 하버드대 다니는 한국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그렇죠.

• ○○○ 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하버드대학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들어보고 학장도 한번 만나보고 이래가지고 쉽게 말해 진로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갖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학생들을 만나서 학교에서 하버드에서 진로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버드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학생들 자기 나름대로 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서로 의견도 나누고.

• ○○○ 위원

하버드대학의 진로교육을 대구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접목을 한다, 이 말입니까?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접목이라기보다는 무조건 우리가 여기 벤치로 가서 접목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우리 대구 교육에 좀 맞는 게 나오지 않을까.

• ○○○ 위원

가서 맞는 걸 한번 찾아보겠냐?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다른 질문 혹시 또 있으십니까?

• ○○○ 위원

질문은 없는데요.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교육 쪽은 의원님들 네 분 있죠?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다른 위원회 자료를 보시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알겠습니다.

• ○○○ 위원

일정에 교육위도 나이가가라하고 그다음에 건교도 주말에는 함께 가이드 일정 이런 게 있는데 차라리 휴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1차 정리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줘야 되지 버젓이 여기다가 관광성을 넣어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동의하라고 하면 다 공고하게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예의가 있으면 좀 우리가 봤을 때 설득 가능하게 일정을 그렇게 올려주고. 아니, 이럴 거면 만약에 가는데요, 하루 정도 그렇게 시간 줬다고 해서 이날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할 분 없어요, 그리고 또 어차피 자부담비도 했기 때문에. 외국 나가면 주말이 없어지니까, 주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는 게 맞지 굳이 또 주말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서 확인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2일차에 중요한 곳을 가도록 돼 있는데 가서 시차적응 할, 2일차 때 계속 졸고 있을 텐데. 열 몇 시간 시차적응하려면, 2일차 되면 설명이 제대로 들릴까요? 계속 졸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일정을 짤 때 앞으로 좀.

중요한 일정은 좀 적응되고 난 뒤에 머리가 맑아졌을 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 위원

세 가지 안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출장 목적이 벤치마킹이죠? 그렇죠?

벤치마킹은 사전 준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해서 현장에 가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구체화돼서 하게 되면 더 설득력이 없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벤치마킹을 출장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합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꼭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출장 목적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리 지난번 회의 때 전부 1월 말 정도에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바로 오늘 저희들이 지적을 해도 여기서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까지는 일정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적어도 한 60일 정도 전에 줘서 여기서 수정 의견을 내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까지는 그냥 넘어가겠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심사의견서에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모두 동일하게 여기서 통과된 하나의 의견으로 삼을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으로 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무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수정가결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타의견에다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새롭게 적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분만 적어서는 이게 다수 의견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 ○○○ 위원

위원장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다수 의견이 되어야만...

- ○○○ 위원

어차피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이번까지는 다 그거를 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로 가는 걸로 하십시오.

- 위원장

그럼 개인 의견으로 하고 전체로 하지는 않도록 할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 회의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 분이 적게 되면 이게 전체 의견인지 아니면 그냥 한 분의 개인 의견인지 이것이 불분명해서 행정 집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 ○○○ 위원

이번까지는 개인 의견... 제가 그랬지만 여러 가지 스케줄상...

- 위원장

개인 의견을 하게 되면 서로 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 ○○○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

• 위원장

여러 명이 하면 안 되고.

• ○○○ 위원

위원장님께서 같이 합심을 해서 같이, 개인 그걸로 하지 말고 그렇게.

• 위원장

전체 의견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도 2번은 일정과 관련된 것이고요.

아까 3번은 출장 목적과 관련된 것인데요.

2번, 3번은 이번에 사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영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반영된다면 교육위의 출장 건에 대해서는 전부 수정 가결을 하고

그 안에 업무를 구체적으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그 부분을 전체를

수정 가결로 하게 되면 그 건을 담당 부서에서 고쳐서 올려 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 ○○○ 위원

네, 저는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수가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 ○○○ 위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나이가 가라 가고 그런 표기는 좀 없애가지고 올리세요.

이거 노골적으로, 안 그래도 맨날 외유성관광이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하는 건 배짱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안 돼요.

개인 의견으로 내 가지고 고치는 게 맞다라고 발표하시고 수정 가결하는 게

그게 안 맞겠습니까?

• ○○○ 위원

의원님, 제가 절차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심사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의사 결정이니까.

의사 결정은 의사 결정대로 하고 이 의견서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로 의회에 전달하는 걸로 하시는 건.

• 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네.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위원전원

네.

• 위원장

그럼 반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시고 별도의 사안을 권고사안으로써 적어서 방금 말한 이 세 가지를 적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건은 업무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된다.

두 번째, 나이아가라폭포와 같은 외유성 일정이 그 속에 명시되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 출장 목적과 활동 관계를 좀 더 개연성을 높도록 만든다.

이 세 가지를 적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위원전원

네.

• 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시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만규 위원님께서서는 당사자에 해당되어 표결권이 없으므로 그래서 7명 중에 5명이 찬성하셔야 통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와 교육위원회는 8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권고안 중에 두 번째 문장만 잠깐 수정하고 넣겠습니다.

주말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한다라는 정도로 완화시켜서..

- 위원장

네.

- 위원장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일곱 분 중에 일곱 분이 다 동의하셔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는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원안 가결, 한 분이 수정 가결을 하셔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 원안 가결.

한 분이 부결, 한 분이 수정...

두 분이 수정가결해서 수정가결 부분을 반영해서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건 다 심의되었고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